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 예고안

현행	개정안
<p>[별표 2의2] 질적심사기준</p> <p>질적심사기준</p> <p>1. (생략)</p> <p>2. 공통 기준</p> <p>가. ~ 라. (생략)</p> <p>마.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p> <p>1) ~ 2) (생략)</p> <p><u><신설></u></p>	<p>[별표 2의2] 질적심사기준</p> <p>질적심사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물적분할 이후에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의 주된 영업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p>
3. (생략)	3. (현행과 같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 예고안

현행	개정안																										
<p>[별표 6] 질적심사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질적심사기준 (세칙 제27조 관련)</p> <p>1. ~ 2. (생략)</p> <p>3. 투자자 보호</p> <p>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p>	<p>[별표 6] 질적심사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질적심사기준 (세칙 제27조 관련)</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투자자 보호</p> <p>-----</p> <p>-----</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 항목</th><th>중점 심사사항</th></tr> </thead> <tbody> <tr> <td>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td><td> <p>·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 누락 여부</p> <p>·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상장법인 경영권을 매각 또는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과정에서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p> <p>·<신설></p> <p>·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p> </td></tr> </tbody> </table>	심사 항목	중점 심사사항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p>·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 누락 여부</p> <p>·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상장법인 경영권을 매각 또는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과정에서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p> <p>·<신설></p> <p>·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p>	<table border="1"> <tbody>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r> <td>-</td><td>·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주)}</td></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body> </table>	--	-----	--			-----		-----		-----		-----	--	-----	--	-----	-	·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주)}	---	-----	--	-----
심사 항목	중점 심사사항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p>·상장예비심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 누락 여부</p> <p>·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상장법인 경영권을 매각 또는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과정에서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p> <p>·<신설></p> <p>·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가능성</p>																										
--	-----																										
--																											

--	-----																										
--	-----																										
-	·상장신청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주)}																										
---	-----																										
--	-----																										
	<p>주)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 12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되고, 설립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의 주된 영업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 상장 가이드북 개정안

물적분할 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뒤 단기간 내에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권의 간접화나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 모회사 주주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로 설립한 자회사가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모회사의 충분한 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질적심사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22년).

질적심사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모회사는 자회사 상장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 이후에 상장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거래소가 주주보호 노력의 이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신청기업은 거래소에 모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모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 실시한 주주 간담회, IR 개최 등 모회사의 소통노력 및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주주와의 소통도 주주와의 소통노력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 현물배당, 주식교환, 배당확대 및 자사주 취득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모회사는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주주보호방안의 이행시점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주주보호방안 예시 >

- 1** 자회사로 분할된 사업부문에 대한 주주권의 회복기회 부여
 - ①** 모회사가 보유한 상장신청기업 주식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
 - ②** 모회사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자기주식(모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매수대가로 상장신청기업 주식(자회사 주식)을 교부(모자회사 주식교환)
- 2** 자회사 성장에 따른 이익을 모회사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확대,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소각 등

거래소는 상장신청기업이 제시한 소통노력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상장신청기업의 모회사가 소통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및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검토한 주주보호에 관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또는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참고 : 주주 보호노력 미흡 사례 >

- ❶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향후 계획, 추진 사유 및 주주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❷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제시한 주주보호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❸ 일반주주와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경우